

#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 방안

임진국 연구위원 jklim@hri.co.kr ☎ 3669-4026

- (기본 방향)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54조원의 신용보증으로 회생가능 기업과 중소·벤처 기업에 대해 73조원의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로 함
  - (회사채 차환발행 지원) 10조원의 Primary CBO 보증을 통해 20조원의 차환을 지원
  - (신용보완 지원)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7조원의 CLO 보증을 통해 10조원의 자금 공급을 지원
  - (중소·벤처기업) 37조원의 보증을 통해 43조원의 시설·운전자금, 기술자금등의 공급을 지원
- 특히, 주식관련 사채를 활용한 ‘벤처기업 전용 Primary CBO 보증제도’ 등을 통해 금년중 기술집약형 중소·벤처 기업에 대해 6조원의 보증을 통해 7조원의 자금 공급을 지원
- (핵심 내용) 주채권 은행의 동일 기업(계열) 신용보증 한도를 늘려주고, CBO의 보증 비율 확대 등 기존 추가 발행의 걸림돌이 되었던 장애 요인을 제거
  - P-CBO 발행 활성화를 위해 주채권 은행이 주도하는 P-CBO에 대해서 보증지원하고, 동일 기업(계열)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
  - 보증 비율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는 등 CBO의 상품성을 제고
- (평가) 이번 조치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긍정 요인으로서 적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, 근본적으로 은행의 소극적인 대출 정책은 은행권 구조조정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쉽게 사라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
- (보완 과제) 향후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국내 금융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꾸준히 시행됨으로써, 불필요한 금융경색과 이에 따른 실물 부문의 침체 등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임
  - 또한, 금년중 발행되는 p-CBO, CLO 등은 만기 도래 시점에, 시장 수급의 불균형 및 만기구조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엄정한 신용평가와 합리적인 금리 책정 등 채권 은행들의 위험관리 능력 제고가 요구됨 **HRI**

## 최근 주요 정책(2001. 1. 10 ~11. 16)

2001년도 정보화 촉진 기금 확정	정보통신부 (1.1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0년보다 11.2% 증액된 5,780억 원 규모의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확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금리 인하: 6.0%~7.25% → 5.25%~6.0%</li> <li>· 총 융자규모 중 75%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</li> <li>·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</li> </ul> </li> <li>- 1차 사업(2,990억 원): 1월12일 공고, 3월중 대상 사업자 선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각종 콘텐츠 및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(2,300억 원), 정보화 설비 지원(450억 원), 중대형 컴퓨터 보급 지원(240억 원)</li> </ul> </li> <li>- 2차 사업(1,260억 원): 3월 중 공고, 5월중 대상 사업자 선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선도기술 개발 보급 지원(1,200억 원), 멀티미디어산업 지원 60억 원</li> </ul> </li> <li>- 별도 추진사업(1,530억 원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초고속망 구축(1,500억 원),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)30억 원)</li> </ul> </li> </ul>
2000년도 기금 운용 평가 제도 개선	기획예산처 (1.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사 대상 기금을 전 기금으로 확대하고 부분적인 상대 평가 제 도입</li> <li>- 非계량 지표 중심의 평가 방식에 계량지표 병행</li> <li>- 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계획서 작성에 활용</li> <li>· 평가 결과에 따라 경상비 지출, 자산 운용 성과금 등을 차별화하여 인센티브 부여</li> </ul> </li> </ul>
「2000.12월말 기준 수입규제 현황」	산업자원부 (1.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0년도에 외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제소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수입규제 국가 및 품목은 23개국 109개 품목으로 확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별로는 미국의 수입규제가 19 건으로 가장 많으며, 중남미 국가의 수입규제 건수가 크게 증가</li> <li>· 철강, 석유화학 및 섬유류 제품들에 수입규제가 집중</li> <li>· 형태별로는 反덤핑 규제가 대부분임</li> </ul> </li> <li>- 이에 정부는 각종 정보 활동 강, 변호사 비용 보조, WTO 적극 활용, 민관 합동의 「수입규제대책반회의」 개최 등으로 대응할 계획임</li> </ul>
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 방안」	재정경제부 (1.1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1년에 신용보증기관은 54조 원의 보증 공급을 통해 최대 73조 원의 기업자금 공급을 지원할 계획(2000년 대비 70% 증가한 수준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을 위해 10조원의 Primary CBO 보증</li> <li>· 신용 보완이 필요한 회생 가능 기업에게 7조 원의 CLO 보증</li> <li>· 중소 · 벤처기업에 대해 37조원 보증</li> </ul> </li> </ul>